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 / 사도행전 2:1-47

요절 / 사도행전 2: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지난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계 선교 명령과 선교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그릇을 이루었는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이르자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홀연히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되지 않는 일회적(一回的)인 사건으로써 구속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에 이어 성령이 온 세상에 부어지는 새 언약 시대의 완성을 선포하는 역사적(획기적) 사건입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과 사도 베드로의 부활절 메시지와 이로 인한 초대교회의 탄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I.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1-21)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약 120명의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돌아와 마음을 같이 하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1) 마침내 역사적인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습니다. 이 날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밀의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맥추절(麥秋節)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출 23:16, 민28:26)

오순절 날이 이르러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2,3)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였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때로 비둘기같이 조용히 평화롭게 임하기도 하고 (마3:16), 또 믿는 자들의 마음에 생수의 강같이 흘러 참 만족과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요7:38,39) 그러나 본문에서는 강력하게 역사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폭풍처럼 강하게 휘몰아치는 바람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것은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셨음을 말해 줍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임한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불은 뜨겁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뜨겁게 역사했음을 말해 줍니다. 또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이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림으로 정결케 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능력으로 임하실 때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첫째 : 그들의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과거에는 성령님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지금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스마트폰의 배터리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때는 10%만 계시고, 어떤 때는 100% 계시는 분입니다.

까? 계시면 계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오셨음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들은 외국어라고는 배워 본 적이 없는 갈릴리 촌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두려움과 자의식으로 인해서 심령이 막히고 입이 막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두려움과 자의식이 사라지고 담대해졌습니다. 닫혔던 입이 열려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될 때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갈릴리 촌사람들이 세계 각국(14개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떨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말씀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 본토 말로 유창하게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놀라 기이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의 종이 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입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 담대하게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 그들은 비전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역사를 본 사람들은 다 놀라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나 하고 의혹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저희가 ‘아침이슬’이나 ‘일새주’를 많이 마셔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요사이 같으면 마약을 피웠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눈동자는 반짝 반짝 빛이 났으며, 그 전신에는 패기와 정열이 넘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생명력(生命力)이 충만했습니다. 보통 술에 취하게 되면 소심하던 사람이 간이 커져서 큰 소리를 잘 치고 겁 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어 할 말을 못하던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술 힘으로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게 되면 정신 상태가 흐려져서 눈에 초점을 잃고 비틀비틀하게 되며, 말도 헛 꼬부라진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생명력이 넘쳤고 외국어 발음도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술과는 달라서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嘲弄)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때가 제 삼시, 즉 아침 9시이므로 술을 마실 때가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 사회는 아침부터 술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말세가 가까워 오므로 이 시대는 말세지말(末世之末)이라고 합니다. 말세 기간은 성령 시대이므로 성령께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성령께서 만민 구속 역사를 위해 더욱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으므로 꿈을 꾸게 됩니다.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모두 성령의 역사 방법입니다.

여기서 볼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젊은이들은 환상에 불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환상이라고 하면 현실을 초월하여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상이란 비전(vision)입니다. 비전이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희망을 말합니다. 그러면 비전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만민 구원 역사에 쓰임 받고자 하는 순수한 영적 소원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또 말과 행동에 박력이 있고 삶에는 생동감이 넘칩니다. 생각하는 스케일이 크고 웅장하며, 개척정신과 모험정신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다운 사람은 비전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늘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최고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고자 합니다. 특히 어떤 모양으로든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선교 역사에 쓰임 받고자 합니다.

1961년(55년 전) UBF가 광주시 대인동에서 시작할 때 광주의 젊은이들은 지방 대학생들이라는 열등감과 가난과 운명의식 속에서 좌절하고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성경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은 그들의 가슴 속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세계선교의 꿈과 환상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꿈을 가슴에 품은 청년들이 일어나 광주를 넘어 전국 캠퍼스를 개척하기 시작하였고, 복음을 들고 전 세계 캠퍼스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세계 90여 개국에 2,0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2월 20일(토)에 1부 김준순 목자와 워싱턴 Sarah Brown 자매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워싱턴 지부장 Jacob Lee 선교사님, L.A의 김이삭 선교사님, 독일 쾰른의 Ab Lee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L.A의 김이삭 선교사님은 본국에서 판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선교 비전을 갖게 되었을 때 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유학생으로 나아가 신문배달을 하며 선교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희생을 받으시고 L.A 역사를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제는 은퇴를 하고 아들과 함께 새롭게 개척역사를 섬기고 계십니다. 독일 쾰른에서 오신 이 아브라함 선교사님은 운명적인 소년시절을 보냈습니다. 6.25때 아버님이 사상운동에 휘말려서 20년형을 선고 받고 감옥생활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를 따라 교도소에 가서 아버님을 칠장너머로 바라만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진학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소심하고 어둡고 운명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답답함을 떨쳐 버리고자 파일럿이 되기 위해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했지만 신원조회에 걸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재수하여 들어간 대학에서 UBF 선배를 만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듣고 영적소원이 생겼고 소심한 성격이 담대해졌습니다. 그 후 대학 2학년 때 요회 목자가 되었습니다. 3학년 때는 후배에게 창세기 1장을 가르치는데 창1:2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신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크신 신발이 태평양 바다를 뚫고 떠 다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그 양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그 양이 변하여 스텝목자가 되었습니다. 1976년 봄 고린도전서 15장을 100번 암송할 때 고린도전서 15: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살려주시는 영, 부활의 영을 덧입었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담대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8년,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하면서 독일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을 의지했을 때 권능을 받아서 지난 30여 년 동안 독일과 유럽개척의 기초를 견고히 놓을 수 있었습니다. 3부 강리빙스턴(지은) 목자님은 열심히 공부하여 내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동역자 강그레이스 목자님은 약대를 나와 약사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이제 얼마든지 세상에서 존경 받으며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사보다 약사보다 목자로서 훈련받고 쓰임 받다가 때가 되면 선교사로 나가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흑인 양들을 섬기는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전이 충만한 사람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질적이고 인간적인데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육체가운데 부어주어야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모두 미래 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비전은 시대와 역사와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비전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황량해도 그 땅이 개척되고 옥토로 변하는 희망

찬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겨우 나 한사람의 인생이 회복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전 세계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젊은이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안락에 자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역사 앞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내고자 열정을 불태우며 숭고한 포부를 간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청년들을 살아있게 합니다. 능력 있게 합니다. 젊은 피를 끓게 하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뭔가를 향해 매달리게 하고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1966년 소회일지(목자모임)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UBF라는 모임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배웠고 늘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위에 이루어 기독교 문화를 쌓고 자주와 독립과 부강과 승리의 생활을 쟁취하여 후진성을 모면하고 정신문화의 수준을 높여 세계로 진출할 것을 바라보자. 동남아의 주역이 되자. 우리가 젊은 지성인으로서 비전을 갖는 것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우리 선배들은 소수이긴 하였지만 이처럼 비전이 있었을 때에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세계로 진출할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의 일신상의 출세를 넘어서서 국가와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소회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선배들은 지금 모두 선교일선에 나아가 실제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이처럼 그 사람의 실제 삶을 위대하게 하고 역사적이 되게 합니다. 비전은 허황된 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들도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조대, 전대, 광산권 6개 캠퍼스를 능히 개척하고, 21세기 세계 캠퍼스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환상을 보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는 역사창조의 주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2월17일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41만 3천명으로, 전년(39만 5천명) 대비 1만 8천명(4.6%) 증가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유행어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88만원 세대’(대출자로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0대의 평균 임금) ‘이대백’(20대 태반이 백수) ‘삼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오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포기), ‘7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꿈, 희망 포기), N포 세대(3포, 5포, 7포를 넘어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20~30대 세대), 이외에도 ‘청년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 ‘인구론’(인문대 졸업생 90%는 논다)에 이어 흡수저, ‘헬조선’(지옥조선), 열정페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조어(新造語)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시대를 타하며 꿈꾸기를 포기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것은 어둡고 죄악된 현실과 부족한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 즉 비전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젊은이들은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 왕 같은 제사장, 교수목자 등 현재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 보이는 비전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우리 심령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애벌레에서 나비로 거듭나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애벌레에게는 자기가 가는 길에 늘어선 모든 것들이 다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냇가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입니다. 학과 공부도 문제고 졸업 후 취직도 문제고 결혼과 자녀양육은 더 큰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이 죽을힘을 다해야 겨우 넘어서 수 있는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비가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은 넘어서기 힘든 장애물이 아닌 목표를 향해 가는데 둘러보는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비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설사 현재 나의 겉모습은 애벌레처럼 보여도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나비의 시야 즉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환상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것

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위해 나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나를 통해 그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심으로 결국 성취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젊은이에게 비전이 없을 때 나이는 젊지만 젊은이다운 삶을 상실하고 애늬은이가 됩니다. 십자가를 싫어하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이 되고 현실에 안주해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작은 행복만을 찾고자 합니다. 비전이 없을 때 비전을 향해 전진하는데서 행복을 찾기보다 틈틈이 즐기는 핸드폰 게임이나 드라마, 밥 대신 먹는 비싼 커피에서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할 때 젊은이는 성령이 주는 비전 가운데 개척하고 정복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힘들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도움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사명을 이루고 그 길을 완주한 후 하나님의 크신 상급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비전을 덧입은 젊은이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설렘과 기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생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며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덧입을 때 ‘우리의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 눈에 보이는 어두운 현실과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봄으로 전진하며 성취하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비전이 없는 개인이나 백성은 망합니다.’(잠29:18) 비전은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할 때 이상(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모든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물러가고 영적인 생각, 비전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II.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22-40)

22-40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요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증언한 후 이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원고도 없이 요엘서, 시편 등 구약의 말씀을 자유자재(自由自在)로 인용하며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생전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그들 가운데 행하게 하심으로 그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이방 로마인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망권세를 파하시고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갑자기 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선지자로서 장차 그의 자손 중에서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부어 주셨습니다.(33) 36절은 메시지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23)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36) 베드로는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죽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바로 그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나의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 정

육의 죄, 배은망덕의 죄, 감사치 않고 불평한 죄, 안일의 죄, 이러한 나의 죄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37)**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찢려 그들의 죄로 인해 상하고 통회(痛悔)하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진실한 회개의 자세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회개할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같이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관문(關門)입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뉘우치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표(證票)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이 정결케 되면 깨끗한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내재(內在)하시게 됩니다. 성령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가 아무리 크고 추하다 할지라도 진실 되게 주님 앞에 나아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새로운 피조물(被造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덧입게 될 때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회개의 메시지도 전파할 수 있고, 완악한 사람들이 회개도 하게 되고, 그 회개의 역사는 파장을 일으켜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회개의 불을 지피는 놀라운 파급효과(波及效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길이 빛날 대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설교를 하던 길선주 장로가 성도들 앞에 나와 자신의 숨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하여 홀로 남은 아내를 도와주라고 했는데 이익금 얼마를 빼돌렸습니다. 그는 이 창피한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다음날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주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숨은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이면서 몰래 아편을 피운 죄를 회개하였고, 어떤 사람은 몰래 기생집에 간 죄,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죄, 교역자(敎役者)를 시기하고 미워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회개의 봇물이 터지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예배당 지붕을 날아가게 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저녁 일곱 시에 시작된 기도회가 새벽 두시가 넘어서도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회개운동으로 성령의 바람은 불길처럼 타올라서 금수강산을 불태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1905년에 321개였던 교회가 2년 만에 642개로, 3만 명 정도 되었던 학습교인수가 10만으로 무려 3배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얼마든지 오순절 성령강림과 같은, 1907년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운동과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III. 초대교회의 탄생 (41-47)

베드로의 부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날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초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에서 3120명으로 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할 때면 이런

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를 교회의 모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째 :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 성도들의 특징 중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거듭난 신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고, 초대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영적인 힘을 끊임없이 공급 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모임이 말씀 중심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신자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자랄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배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매주하는 말씀공부를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별 영양가 없는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세 끼 밥 잘 먹는 것이 그 어떤 보약보다 낫다.” 건강한 삶은 규칙적인 식사로부터 시작합니다. 품격 있는 신자, 건강한 교회는 규칙적인 배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성경 공부하기에 힘썼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말씀 공부가 첫째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임만이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 공부입니다.

둘째 : 그들은 서로 교제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동문회가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한 영적인 사귀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모임입니다. 그들은 서로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은 ‘밥 먹는 것’, ‘밥상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들은 교인들끼리 함께 밥 먹는 일에 힘썼습니다. 밥을 함께 먹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인격적 사귀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주님의 삶과 피도 기념했습니다. 이것을 ‘성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살로 맺어진 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랑이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음식을 함께 먹는데서 오고 갑니다. 그들은 ‘삼양 라면’, ‘농심 진짬뽕 라면’을 끓여 먹고자 서로를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Eating Fellowship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사랑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고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중심으로 서로 사귀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천국(天國)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고 소감을 함께 나누고 사랑의 대화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사자는 사냥할 때 무리 속에 있는 짐승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있는 짐승을 사냥감으로 공격합니다. 사단도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떨어져 홀로 있는 성도를 공격하여 삼키고자 합니다.

셋째 :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뒤를 이어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도 못하면서 도움도 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스마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힘은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강해집니다. 기도는 모든 의심과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게 합니다. 기도는 성령을 충만히 덧입게 하며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영혼은 결코 낙심치 아니하며 결코

시들지 아니합니다. 기도해 힘쓰는 영혼은 날로 그 심령이 새로와지며 신선해지며 능력을 덧입어 가게 됩니다. 그들은 개인기도, 새벽기도, 들썩 기도, 합심기도, 만나면 기도, 헤어지기 전에 기도, 잠자기 전에 기도, 무시(無時)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자연히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사단이 놀라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는 모임을 귀히 쓰십니다.

이상에서 볼 때 초대 교회 특징은 말씀과 사랑과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될 때 그 모임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제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44-47)

첫째 :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44a). 이는 일상적인 생업도 포기하고 24시간 함께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肢體)로서 서로를 인식하였으며 강한 영적 결속력을 갖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이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모임에 금요일 저녁기도 모임에 꼭 나오세요, 목요일 7시 학생회 모임에 꼭 참석하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예배 시간에만 슬쩍 얼굴 내밀고 일주일 내내 센터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간만 나면 다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모님들이 오전 10시에 모여 팀 공부를 하면 서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의 대화로 점심 먹는 것도 잊은 채 4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수요일 밤 9시 40분 동역자모임을 하면 금방 12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늘 함께 있는 한 공동체의 모임처럼 보였습니다.

둘째 : 가진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었습니다(44b,45). 이 모습은 개인 재산을 포기하고 공산주의(共產主義)처럼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 부자들은 자기들이 번 돈을 자기들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아낌없이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이론으로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역동성을 가질 때 배려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안에 사랑에 기초한 자발적인 분배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사회적 변혁(變革)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 안에서는 오그라진 손을 펴서 남에게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내면에 서로 공유(共有)하고 나눠주는 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셋째 : 모이기에 힘썼습니다(46,47). 이 말씀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優先順位)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친구와 만나기 싫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야,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구나.” 그러나 바쁜 것보다도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빠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있으면 먼저 모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동역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함께 모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스케줄이 다르고, 처한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자주 빠지는 사람들로 인해 힘이 빠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구절을 볼 때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 모이는데 힘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共同體)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모임을 세운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만을 내세울 때 ‘날마다’ 모이는 것은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는’ 모임이 아니라 마음은 콩밭에 있는 사분오열(四分五裂)된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여 보았자 오히려 힘이 빠져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우리 7부가 초대교회에서 한 가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자주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척장난명 隻掌難鳴, 고장난명 孤掌難鳴 :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모임은 그냥 세워지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하여 힘을 써야만 세워집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讚美)했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의 눈에 비친 초대교회의 모습은 경건과 사랑이 풍성한 모임, 7부 학생회 모임과 같이 꼭 들어가고 싶은 부러운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모임이었기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2016년 우리 7부가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공동체가 된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을 쓸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을 때 각 사람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뿌리는 말씀 전파를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 뿌리가 자라서 말씀공부, 사랑,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늘 함께 있는 공동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남을 배려하는 삶, 모이기에 힘쓰며 사귄을 갖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키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영접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또 사랑의 교재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덧입고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